

지혜

불교의 이해 2

김문준 교수

행복을 얻는 길 -지혜-

▶ 행복을 얻는 길의 내용은 무엇인가.

그 길은 나와 세상의 실상을 아는

지혜에서 시작된다.

모든 진리의 실상에 대한 앎을

지혜(智慧: prajna 般若)라고 한다.

연기(緣起)

- ▶ '연(緣)하여, 결합해서 일어난다'는 뜻
- ▶ 각 지분(支分)은 자기 앞의 지분에 연하여 일어나, 하나의 커다란 온(蘊; 덩어리)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.

연기(緣起)

- ▶ 십이연기설은 초기경전에 설해진 가장 심오한 법문이며, 깨달음의 내용이며,
- ▶ 그곳에 설해진 여러 가지 법문을 하나로 종합하고 체계화한 최고 이론.
- ▶ 오온(五蘊). 십이처(十二處). 생사(生死) 등의 여러 가지 법이 그 속에 하나로 짜여져 있으며,
- ▶ 연기라는 발생법에는 인과(因果). 인연(因緣). 상의상관(相依相關) 등의 모든 불교의 개념이 포섭되어 있다.

인연과 다르마

- ▶ ‘인연’(因緣)이란 ‘모든 현상은 인과 법칙 속에 빈틈없이 매어져 있다’는 것을 가리킨다.
- ▶ 인연이란 윤리 차원에서의 우주 법칙.
윤리 차원이 아닌 더 넓은 세계의 법칙을 말할 때는 **다르마(dharma)**라고 부른다.
- ▶ 다르마는 근원적인 법(法)이다.
상주 불변하는 것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,
제행무상과 제법무아 속에 다르마가 있을 뿐이다.

존재와 자아

모든 존재란 깜박하고 생겨나는 찰나에
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
어느덧 곧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
오직 순간만이 진실일 수 있으며,
우주도 역시 개별적인 존재 요소의
부단한 흐름,
즉 무상(無常)의 연속
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
존재와 자아

- ▶ 또한, 우리들 속에는 고정 불변한 자아(自我)도 있을 수 없으며, 영혼이나 의식도 또한 모든 찰나마다 사라졌다가는 다시 생겨나는 것이다. 다만 정신 과정이 전개되어 나가는 신속성과 그의 명멸하는 착잡성 때문에 어떤 항구적인 자아가 있는 듯한 그릇된 인식을 준다.

존재와 자아

- ▶ 마치 영화 필름 하나 하나를 보면
찰나적인 한 동작에 불과하지만,
그것을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돌릴 때
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불변한
자아의 상을 던져 주는 것과 같다.

다르마의 인과

- ▶ 다르마의 발생과 소멸은 불규칙하게 진행되거나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.
하나의 엄격한 인과 법칙에 따른다.
- ▶ 모든 다르마는 선행하던 다르마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조건에 상응하는 규칙적 결과를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, 결국 모든 현상은 인과 법칙 속에 빈틈없이 매여 있다.
- ▶ 이것이 연기설

연기법

- ▶ 연기라는 말은

<인연이 있어서 일어남> 이라는 뜻

- ▶ 연기법을 인과법(因果法)이라고도 함.

원인과 결과의 법이라는 뜻

연기법

- ▶ 연기법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 붓다의 계송
(偈頌; 붓다의 공덕을 찬미한 글귀)

- ▶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,
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.
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,
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.

“此有故彼有, 此起故彼起”

연기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

- ▶ 연기법을 알아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.
- ▶ 첫째,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지기 때문이다.
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과정도
이전까지의 원인과 결과의 연속선상에 불과하다.
연기법에 따라 모든 생명은 물론, 이 우주 자체도
생기고 무너져 가며, 또 생겨나고 사라져갈 것이다.
- ▶ 둘째,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치는 서로 의지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쪽도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.
연기법은 인간의 육체 현상은 물론
정신(마음)현상에도 적용된다고 본다.

연기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

- ▶ 연기설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?
- ▶ 모든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,
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, 삶의 가치 등에 관한
문제를 해명해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.
- ▶ 붓다는 오랜 각고의 구도(求道) 끝에
<인간의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서
연기(緣起)한 것임>을 발견했다.
- ▶ 12인연이라는 것은 오로지 미혹의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
4체 중의 고(苦)와 집(集)에 해당한다.
- ▶ 번뇌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번뇌를 낳는 영원한 순환과정

12인연 - '생의 수레바퀴' -

▶ 중생의 고통이 일어나는

<원인-결과>의 12단계 과정
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무명(無明) | ② 행(行) |
| ③ 식(識) | ④ 명색(名色) |
| ⑤ 육입(六入) | ⑥ 촉(觸) |
| ⑦ 수(受) | ⑧ 애(愛) |
| ⑨ 취(取) | ⑩ 유(有) |
| ⑪ 생(生) | ⑫ 노사(老死) |

- ① 무명(無明) : 어리석고 무지함.
- ② 행(行) : 무명 때문에 생겨난 생의 의지, 생의 본능.
근본적인 어리석음, 무지, 맹목성.
- ③ 식(識) : 모태(母胎)에 의탁하여 태어나려 할 때의
심식(心識)으로서, 무의식적인 영혼.
- ④ 명색(名色) : 모태에 있을 때의 정신적, 물질적 상태로서,
이름과 형태, 개체, 인식의 대상.
- ⑤ 육입(六入) : 감각 기관(눈, 귀, 코, 혀, 몸, 의(意) 등)이
자라서 다 갖추어짐.
- ⑥ 촉(觸) : 접촉함
- ⑦ 수(受) : 지각, 감수 작용으로, 기쁨과 괴로움 등에 대한 느낌을
받아들이는 작용.
- ⑧ 애(愛) : 충동, 욕정, 탐냄 등의 욕망.
- ⑨ 취(取) : 집착, 생의 충동, 생의 집념 등 소유하려 함.
- ⑩ 유(有) : 업의 달성, 즉 새로운 실존을 위한 전제로서,
욕망 때문에 생겨난 선. 불선의 행위.
- ⑪ 생(生) : 출생, 한계 상황적 실존이며, 내세(來世)의 생.
- ⑫ 노사(老死) : 노쇠기와 죽음으로서, 갖가지 고뇌를 대표하는 것

연기의 과정

- ▶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업이 있고,
- ▶ 업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,
- ▶ 마음이 있으면 몸과 정신이 있고,
- ▶ 몸과 정신이 있으면 눈. 귀. 코. 혀. 몸. 뜻이 있고,
- ▶ 눈. 귀. 코. 혀. 몸. 뜻이 있으면 이 세계와 접촉하고,
- ▶ 접촉이 있으면 좋음. 싫음. 무덤덤함의 느낌이 있고,
- ▶ 느낌이 있으면 욕망이 있고,
- ▶ 욕망이 있으면 집착이 있고,
- ▶ 집착이 있으면 존재하려는 경향이 있고,
- ▶ 존재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죽은 후에
- ▶ 새로운 태어남이 있고,
- ▶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, 병들고, 죽는 고통과
걱정, 근심, 비탄 등의 번뇌가 있다.

'나'란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?

- ▶ 그런데 물질에는
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다.
인과율에 따라 필연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다.
- ▶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.
붓다는 이 문제에 대해,
인간은 물질적인 색온(色蘊) 외에
다시 수, 상, 행, 식이라는
정신적인 사온(四蘊)을 추가한
오온설을 제시했다.

'나'란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?

- ▶ 수, 상, 행, 식의 사온은
물질적인 색온을 바탕으로
개체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고
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식별하는
정신적인 기능을 각각 표현.
- ▶ 실제로는 없는 '나'를 대신하여
'나'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
바로 이러한 **오온(五蘊; 다섯 덩어리)**.
- ▶ '온(蘊)'이란 인간의 존재를
실재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성 요소들.

인간 = 오온

물질의 무더기(色)

육체

느낌의 무더기(愛)

표상의 무더기(想)

정신

의지의 무더기(行)

의식의 무더기(識)